

한기총 정상화 위한 총회, 법원에 신청

김용호 직무대행, 40일간 탐문 결론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용호 변호사는 '한기총의 개신교 안정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한기총 소속 교단과 단체에 발송한 서신에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총회를 오는 31일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에서 다루어질 안건은 1)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 여부, 2)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 여부, 3) 세속 법정에서의 각종 소송 취하 권고 여부로 만약 법원의 허가가 나면 6월 1일부터 준비해 6월 30일에 총회가 개

최월 전담이다. 김 직무대행은 총회에 상정될 안건과 관련 "3)안건은 결의되어도 당사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나, 분쟁 제기의 목적이 급권 선거 등의 재발방지와 한기총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청문과 정과 공개 발정에서 명백히 밝힌 이상 1)안이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세속 법정에서의 분쟁이 종식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교단장 단재장 회의를 끝으로 40여 일간의 직무대행으로서의 탐문 절차를 마치고 내린 것으로 의견과 진술 및 자료, 법과 상식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종합하여 내린 결론이다"라고 밝혔다.

이외관련 그는 "최선이 아니면 차

선이라도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직무대행의 입장과 한계를 이해해 달라"고 말하며 "개별교단이나 책임자 개인의 주관과 이해관계를 벗어나 부디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기준을 찾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그는 "이번이 직무대행의 마지막 편지가 되길 희망한다"며 "총회 절차가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저 역시 임무를 마치고 본업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혹 이번 총회가 개신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인정 속에서 추후 다시 모여 의논하고 공리하여 발전해 나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정주간 맞아 장한어머니상, 가정평화상 시상

기독교가정생활협 - 양재순 장로, 정재봉 정교 가정 수상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새가정연구원 주최 가정주간 기념에 배에서 양재순 장로(신산중앙교회)가 '장한 어머니상', 정재봉 정교와 한동찬 부교 가정(제10회 가정평화상)을 수상했다.

지난 19일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에서 열린 이날 예배는 감석찬 목사(주동교회)의 사회로 신재국 사관(구세군서울제일교회)의 기도, 남기탁 목

사의 믿음의 가정을 우선하라'란 제목의 설교, 송정숙 총무의 수상자 소개, 남기탁 목사의 시상, 전용철 목사의 축사로 마쳤다.

송정숙 총무는 "양재순 장로는 1991년 교통신로 남편을 잃고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2남 1녀를 신앙으로 교육시켰고, 13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하면서 도 견고한 신앙을 지켜온 그의 삶에

서 가족체제 가족상실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떻게 서야 할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고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로 선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가정평화상을 수상한 정재봉 정교와 한동찬 부교의 가정에 대해서 "5대째 믿음으로 이어온 신앙의 가정으로 이 부부의 온화하고 아름다운 품성이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슬하에 둔 2남 2녀 역시 믿음으로 성장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배를 마친 후 김광년 목사(새가정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새가정연구원 세미나가 열려 백소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HK연구교수)가 '자녀를 행복하게, 부모를 건강하게'란 주제로 발표했다.

생명·개혁·회개운동 일어나야

개혁주의생명신학회 '5대 슬라', '7대 실천운동' 강조

개혁주의생명신학회(회장 김진선)가 지난 21일 방배동 백석아트홀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성격적 토대 모색-그 아름다운 해답이라는 주제로 제1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개혁주의신학이 가지고 있는 생명수를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생명운동, 개혁운동, 회개

운동을 통한 한국교회의 비전'을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윌리엄 데니스 박사(미국 풀러신학교 조직신학자)는 '하나님나라운동으로서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 백석대 장준대 교수는 '2010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에 나타난 선교학적 의미'라는 제목의 발제, 안양대 김창대 교수는 '헤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개혁주의생명신학'에 대해 발제했다.

개혁주의생명신학회는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5대 표어인 '5대 슬라(오직)'의 실천으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믿음의 심오한 기준이 삶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오직 성경의 신앙운동 △사변화된 신학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학회복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생명운동 △심미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그

리스도의 주되심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운동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운동 △오직 성령님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성령운동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세상과 이웃에게 나누며 섬기는 나눔운동 등 7대 실천운동이 전교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전개하고 있다.

개혁주의생명신학회는 3회에 걸쳐 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성격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힘써오고 있으며, 세계 석학들을 통해 신학적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으면서 죽어가는 개혁주의신학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월드미션협의회 22대 대표회장 정낙천 목사 취임

여성대표회장에도 황재순 목사

월드미션협의회 제 22대 대표회장 정낙천 목사, 여성대표회장 황재순 목사가 취임했다. 지난 19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지도자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예배는 조용할 목사(부총재)의 사회로 시작되어 최애현 목사(대기총 여목대표회장)의 기도, 유재봉 목사의

(감사단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이만신 목사(대표총재)가 '영적 지도자의 자세'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열린 취임식에서는 이만신 목사(이사장)가 취임사언을 하고 대표회장 정낙천 목사와 여성대표회장 황재순 목사에게 각각 취임패, 이임하는 이수재 목사와 이우자 목사에게 이임패를 증정했다. 축하와 권면의 시간에는 강기원 목사(대기총 상임회장), 이용철 목사(부총재), 권오덕 목사(대기총 상임회장)가 축사, 격려사,

권면을 전했다. 총회부흥사업협의회 임원들과 전국여교역자협의회에서는 취임축하패를 증정했다.

정낙천 목사와 황재순 목사는 취임 인사에서 "부족한 사임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하며 "월드미션협의회가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예배는 사무총장 장흥섭 목사의 광고에 이어 김원도 목사(대기총 대표회장)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선교를 향한 새로운 바람-세계복음화에 기여

인투미션 선교학교 19기 수료자 61명 배출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윤대준 목사) 세계선교훈련원(원장 안희열 목사)은 지난 10일(화) 포항중앙교회(김중식 목사)에서 인투미션 선교학교 제 19기 수료식을 갖고 61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번 수료식은 10주간 함께 한 훈련생과 교회 성도들이 모여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안희열 원장은 "인투미션을 계기

로 포항중앙교회와 포항 지역에 선교를 향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특히 6월 5일부터 6일까지 충주 컨벤션 리조트에서 열리는 인투미션 컨퍼런스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역교회와 평신도들이 선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0주간의 인투미션을 진행한



김진남 선교사(WMTC)는 "10여 차례의 방문을 통해 포항이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졌다면서 '인투미션을 통해 평신도들이 변화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긴 여정의 피곤함

도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전했다.

세계선교훈련원은 6월 5-6일 충주 컨벤션리조트에서 '열방이 부르다 평신도들이여!'를 주제로 인투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세대 신앙의 대잇기 세미나 성황리 종료

담임목회자가 먼저 교회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김경서 목사)는 '다음세대 교회교육 추진위원회'를 임원회 자문위원회로 구성하여 다음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구성된 이후 당면한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교육을 홍보하기 위해 '다음세대 신앙의 대잇기 세미나'를 각 지역별로 4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대전 유성 스포피아호텔과 대전신학대학교에서는 각각 담임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와 다음세대

교회교육을 위한 집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이미 3차례에 걸쳐 대구, 광주, 서울지역의 세미나를 거쳐 마지막 일정으로 개최된 세미나로 대전지역 목회자 및 교사, 신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교육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먼저 담임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후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교사 및 평신도 대상 교회교육집회를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날 총회장 김경서 목사는 세미나 개최에 설교를 통해 "교회학교 교육이 단지 성경공부라는 영역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교육 전반에서, 우리 삶의 자리 전 영역에서 신앙교육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제61주년 6.25상기 구국기도회

· 일시 : 2011년 6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안양성전)



고문 조용목 목사, 고문 최보기 목사, 고문 최한용 목사, 고문 배기은 목사, 고문 배진기 목사, 고문 이준원 목사, 고문 김상용 목사, 대표회장 최상열 목사, 부대표회장 상원환 김용덕 목사, 총무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

<p>주최</p> <p>이희영 목사(개혁) 윤태준 목사(기침) 임종달 목사(기하성(통합)) 공병철 목사(합동진리) 이영근 목사(호헌) 정미리 목사(기감보수) 김봉하 목사(합동보수진리) 안충관 목사(중원) 김익희 목사(합동총신측) 박윤진 목사(개혁합동) 최창복 목사(URC) 이위 목사(합동보수)</p>	<p>주최</p> <p>최창룡 목사(예장연호) 황상호 목사(합동성목) 김관중 목사(영신) 손용호 목사(합동진리) 김명희 목사(합동) 김지현 목사(오순절) 임연남 목사(수도) 김태진 목사(은혜) 홍록두 목사(고려) 홍정식 목사(HIM) 박태영 목사(개혁진리)</p>	<p>주최</p> <p>이영렬 목사(개혁) 유영식 목사(기침) 김홍성 목사(기하성(통합)) 이상용 목사(합동진리) 도용호 목사(호헌) 정일진 목사(기감보수) 유희선 목사(합동보수진리) 오재근 목사(중원) 김병근 목사(합동총신측) 이대현 목사(개혁합동) 유홍식 목사(URC) 이수득 목사(합동보수)</p>	<p>주최</p> <p>김재훈 목사(예장연호) 김동민 목사(동신) 최전봉 목사(합동성목) 신오성 목사(영신) 원성덕 목사(합동진리보수) 임재식 목사(합동) 최상호 목사(오순절) 노병학 목사(수도) 송계바 목사(은혜) 강구원 목사(고려) 박호중 목사(HIM) 김은실 목사(개혁진리)</p>	<p>주최</p> <p>공병철 목사 [예장(합동진리)총회] 김바울 목사 [예장(호헌)총회] 한익빈 목사 [예장(합동진리보수)총회] 원성덕 목사 [예장(합동진리보수)총회] 김홍성 목사 [기하성(통합)] 서현철 목사 [예장(호헌)총회] 도용호 목사 이교의 목사 [대예장(영신)총회] 김관중 목사 [예장(영신)총회] (안내부위원장 : 신오성 목사, 문기숙 목사) 윤영숙 목사 [예장(합동총신측)총회] 이상용 목사 [예장(합동진리)총회] 박찬목 목사, 김동민 목사 김옥순 행정국장</p>
---	--	--	---	---